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5개국·3개 국제기구 참가 확정

개막 200일 앞두고 도민보고회서 행사장·전시관 등 점검
랜드마크 조형물 ‘루미아일’ 포함 공정률 50% 준비 순조

섬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 박람회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에 현재까지 25개국과 3개 국제기구의 참가가 확정되며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박람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두 달여간 열린다.

전남도와 여주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9일 여수 소노캄 여수 호텔에서 도민보고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박수관 민간위원장, 중앙부처 관계자, 유관기관·단체, 시군, 교육청, 섬 전문가,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박람회 개막을 약 200여일 앞둔 시점에서 주행사장과 주요 시설 조성 현황, 전시 콘텐츠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 현재 행사장 공정률은 약 50%로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오는 6월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제관(랜드마크)을 포함한 8개 전시관의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를 마친 뒤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박람회 기간 본격 운영된다.

전시는 주제관을 중심으로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문화관, 섬놀이터, 섬식당마켓관, 섬공동산 등으로 구성된다. 섬의 과거·현재·미래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엮어 전 세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람회의 상징 조형물인 ‘루미아일(Lumi Isle)’은 빛과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한 랜드마크로, 낮과 밤,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출을 선보인다. 미디어아트와 야간 공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제 참가와 관람객 유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300만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전국 방송 연계 홍보, 주요 거점 팝업 홍보, 언론인·인플루언서 초청 팸투어, 해외 매체 및 온라인 플랫폼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람회의 국제적 의미와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도 이어졌다. 한국섬진흥원 김남희 진흥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여수 소노캄에서 열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업실장은 UN 차원의 ‘세계 섬의 날’ 기념일 제정 필요성을 제시했고, 조시영 경남도 섬 전문위원은 남해안권 섬·해양 자원을 연계한 해양관광 확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전남대학교 박효연 교수와 윤승철(사)섬즈업 대표는 해양레저관광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지속 가능한 섬 관광 모델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향자 교수는 주요 시설의 사후 활용

과 섬 방문 연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김영록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섬의 가치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와 공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준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섬 박람회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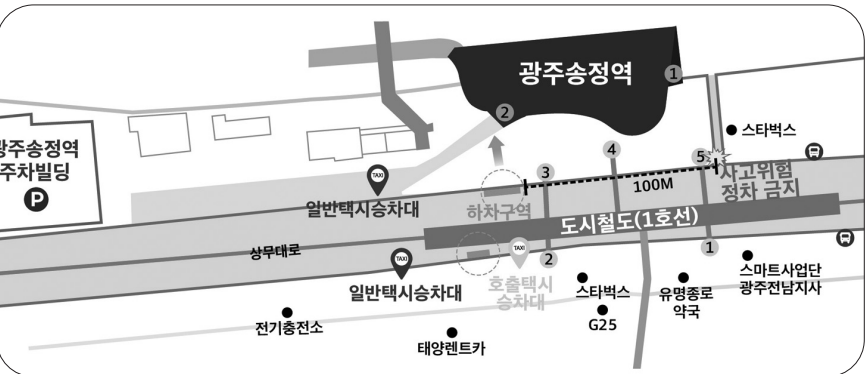
‘상습정체’ 광주송정역 승강장 교통체계 확 바꾼다

승·하차 분리·하차구간 신설
카카오 등 호출택시 승차대도
정체·혼잡 완화·보행안전 강화

만성적인 교통 혼잡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승강장 일대 교통체계가 바뀐다.

광주시는 호남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의 상습 정체와 혼잡, 보행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강장 교통체계를 개편,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9일 밝혔다.

시는 현장 안내인력 등을 배치해 조기 정착을 유도한 뒤, 상반기 중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광주송정역 일대 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은 승·하차 구간을 기능별로 분리하고, 호출택시 이용 질서를 정비한 것이다. 그동안 역 주변에서는 승차 차량과 하차 차량이 뒤섞이며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도시철도(지하철) 광주송정역 5번 출구 인근에 집중돼 있던 승하차 차량의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약 100m 지점인 3번 출구 앞에 ‘하차 전용구역’을 새롭게 조성했다.

특히 카카오·우버택시·티머니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와 협업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광주송정역’으로 설정할 경우 자동으로 ‘하차 전용구역’으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설했다. 현재 택시는 새로 조성된 하차 구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일반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플랫폼 택시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철도(지하철) 광주송정역 2번 출구(KTX 광주송정역 건너편) 앞에 ‘ 호출택시 승차대’를 신설했다. 플랫폼 시스템 설치를 통해 지정된 승차대에서만 택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해 일반 대기 택시와 혼선을 줄이고, 승객이 차량을 찾기 위해 차도를 오가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보행 안전도 강화했다.

승차 방법은 이용수단에 따라 구분된다. 택시는 지정된 승차대 또는 새로 조성된 호출택시 승차대를 이용하면 된다. 자

가용 이용객은 역 앞 도로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0분 무료 회차”가 가능한 광주송정역 주차빌딩 이용을 권장한다. 자가용으로 마중 나온 경우 주차빌딩에서 기다렸다가 승객을 탑승시켜 이동하라는 것이다.

시는 광주송정역 승강장 교통체계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인력 배치와 시민성을 높인 안내표지판을 설치, 운영한다.

이번 개편안은 택시업계 간담회와 수차례 현장 실사를 거쳐 마련됐으며, 교통흐름 개선은 물론 택시 영업환경 개선, 시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광주송정역 승강장 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설 명절을 맞아 광주송정역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민기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머물고 싶은...’서 계속

광주의 도시문화·예술 관광과 전남의 해양·섬 관광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방문 중계에서 체류·순환 중심으로 관광 구조 전환을 꾀할 수 있게 된다. 광주 도심 체류를 출발점으로 전남 전역을 순환하는 관광 동선이 구축될 경우, 관광객 이동과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통합 관광권의 효과가 주목된다.

개별 지역 단위로는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도시문화·예술·미식과 해양·섬·치유 관광을 결합한 광역 관광권이 형성될 경우 무안국제공항 등을 활용한 국제 관광 상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역시 통합 체제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일 지자체 차원에서는 부담이 컸던 복합 관광시설이나 대형 컨벤션·전시 기능, 국제 관광객을 겨냥한 콘텐츠 유치 등

이 광역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을 단순 방문 산업이 아닌 체류·소비 중심의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광주관광공사는 행정통합 이후 관광사업 구체화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통합 광주관광 BI 스토리라인 구축’, ‘5대 대표 관광 콘텐츠 육성’, ‘관광·상권·축제 연계 모델 정착’, ‘맞춤형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대표 MICE 육성 및 국제회의 유치’ 등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통합 관광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관광 분야에서 단순한 행정 효율성 개선을 넘어, 광주·전남 관광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통합 이후 관광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통합의 성과가 가장 먼저 가시화되는 시험대가 관광 분야가 될 것”이라는 분석했다.

도, 재난 피해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50% 감면

전남건축사회와 협약·태풍 등 피해 가구 주거 재건 지원

전남도는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주택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건축사회와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동일한 기준의 지원을 받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지원 대상자 발굴과 절차 간소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조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협약에 앞서 전남건축사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첫 이사회 논의를 통해 지역 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이끌어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본보,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선정

2020년부터 7년 연속 선정 쾌거

광남일보(회장 양진석)가 7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9일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광남일보를 포함한 전국 지역 일간지 29개사와 지역 주간지 45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경영의 건전성과 함께 제작·취재·판매·광고 전반에 걸친 윤리자율 강령 준수 여부, 편집자율권 보장, 지역사회 공헌도, 중장기 발전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언론사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따라 취재·구독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광남일보는 기존 행정·정치 중심 보도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과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지역 언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짚는 기획 보도와 심층 취재를 통해 공

론의 장을 넓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집중해 왔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과 환경, 안전, 공동체 회복을 아우르는 기획기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휴먼스토리 발굴에도 힘쓰며 독자와의 접점을 넓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광남일보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공익적 취재와 콘텐츠 제작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K-문학’ 새 지평 열 방안은’ 등 기획 취재와 뉴스 읽어주기 △독자권익위원회 칼럼 지원 사업 △인턴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을 진행했다.

광남일보는 앞으로도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과 소외 계층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 등에 나설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신미경 제3대 전남사회서비스원장 취임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확대”

신미경 제3대 전남사회서비스원장(사진)이 9일 취임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신미경 원장은 최근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공식 취임했다.

신 원장은 1994년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 현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31년간 노인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현장 전문가다.

여수시립 진달래마을요양원 원장을 역임하며 어르신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 복지경영을 이끌어 왔다.

의료 현장에서 출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실현해 온 점이 특징이다. 도서·농촌·산단 등 복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이동복지, 무료 급식, 주·야간 돌봄, 가족부담 완화 돌봄



등 생활 밀착형 사회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다.

신 원장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전남형 통합사회서

비스 강화, 긴급·특세 돌봄 등 민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돌봄 영역에 대한 공공 역할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신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행정 중심이 아니라 현장과 도민의 삶에 중심에 둔 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